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2021 세대평등포럼(Generation Equality Forum) 참관기(1)

장은하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조혜승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윤지소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국제협력센터장

박윤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원

I. 들어가며

2021년 6월 30일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세대평등포럼의 개회식에는 세계 각국 정상, 정부 대표, 국제기구, 여성운동 활동가, 시민사회, 청년단체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여 2021년부터 2026년까지 향후 5년 동안 성평등 달성을 위해 실행할 구체적인 행동 목표를 논의하였다. 이들은 6개 영역(젠더기반폭력, 경제 정의 및 권리, 자기몫 결정권 및 성·재생산 건강 및 권리, 기후정의를 위한 여성주의 활동, 성평등을 위한 기술과 혁신, 여성주의 운동과 여성 리더십)에 대한 “성평등 실현을 위한 국제가속화 계획(Global Acceleration Plan for Gender Equality)”을 수립하였고, “여성평화안보와 인도적 활동에 관한 협약(Compact on Women, Peace and Security and Humanitarian Action)”에 합의하였으며, 성평등 달성 5개년 계획을 지원하기 위해 약 40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약속했다.

코로나로 인해 1년 순연되어 2021년에 개최된 세대평등포럼은 1995년의 북경행동강령을 계승하고,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내 성평등 목표, 그리고 최근 글로벌 의제로 급부상한 여성평화안보(Women Peace and Security) 아젠다 등을 포괄하여, 다음 세대를 견인할 성평등 아젠다를 수립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당초 2020년 파리에서 전 세계 전문가들이 모여 거대한 축제로 개최될 계획이었지만, 코로나로 인해 취소되고 2021년 온라인으로 개최됨으로 인해 글로벌 차원에서의 가시성이 예상보다 낮았고, 포럼에서 논의된 이슈들이 한국 내에서 의제화되는 데에도 큰 한계를 보였다.

그동안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세대평등포럼의 성격과 의의를 국내에 알리기 위해 기관의 공식 발간물인 2020년 젠더리뷰 겨울호, 2021년 젠더리뷰 봄호, 2021년 KWDI 브리프(제68호, 2021. 10. 31.) 등에서 동 포럼에 대해 소개하고 분석한 바 있다.¹⁾ 이는 포럼의 성격과 내용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선행되어야만, 국내 의제화와 정책 반응을 위한 논의를 비로소 전개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노력의 연장 선상으로 이 글에서는 작년 2021년 6월 30일부터 7월 2일까지 개최된 세대평등포럼을 참관하여 포럼에서 논의된 의제들을 보다 자세히 분석하고자 한다.

세대평등포럼은 7개의 주제(theme)로 나뉘어 총 3일에 걸쳐 논의가 전개되었다.²⁾ 이 글에서는 첫째 날 개회식과 마지막 날 폐회식, 그리고 7개의 주제 중 제1 주제인 “양성평등을 위한 글로벌 가속화 계획(Global Acceleration Plan for Gender Equality)”내 세션들을 다루고자 한다.³⁾ 제1 주제 내 세션들은 세대평등포럼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6개 행동연합과 여성평화안보와 인도적 활동에 관한 협약의 출범식의 성격으로 진행되었다. 본고에서는 이 세션들의 참가자 소개, 이들의 발언과 정책과 예산에 대한 약속(commitment)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였으며, 이를 통해 독자들에게 세션의 내용 뿐 아니라 간단한 분석, 그리고 전반적인 분위기도 전달하고자 한다. 본 참관기는 총 2회로 나누어 연재될 계획이며, 이 글은 그 첫 번째 원고이다.

1) 박윤정(2020).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북경행동강령 25주년 기념 국제포럼 참가기,” 2020년 젠더리뷰 겨울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https://kwdi.re.kr/publications/genderReviewView.do?p=5&idx=126767> (접속일: 2022. 3. 24.); 윤지소(2021). “2021 세대평등포럼(Generation Equality Forum) 개최와 향후 글로벌 여성의제 이행 전략,” 2021년 젠더리뷰 봄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https://kwdi.re.kr/publications/genderReviewView.do?p=4&idx=127326> (접속일: 2022. 3. 24.);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국제협력센터(2021). “2021 세대평등포럼(Generation Equality Forum)의 개최와 의의,” <https://kwdi.re.kr/publications/kwdiBriefView.do?p=1&idx=129206> (접속일 2022. 3. 24.)

2) 세대평등포럼의 프로그램은 다음 참조. https://forumgenerationegalite.fr/sites/default/files/2021-06/GEF_Programme_EN.pdf (접속일: 2022. 3. 27.)

3) 다른 6개의 주제는 다음과 같다. 제2 주제: 세대평등: 힘을 합하여; 제3 주제: 페미니스트 청년들의 목소리; 제4 주제: 평등을 위한 모두의 행동; 제5 주제: 변화의 동인; 제6 주제: 코로나19, 페미니스트 대응, 제7 주제: 세대평등포럼, 글로벌 대화와 지역 내 역동성



출처: Generation Equality Paris: Official Opening Ceremony
<https://www.youtube.com/watch?v=gE08p2l7Ex4> (접속일: 2022. 3. 26.)

[사진 1] 세대평등포럼 개회식

2. 개회식⁴⁾

세대평등포럼의 개회식은 포럼의 첫째 날인 6월 30일에 주최국 에마뉘엘 마크롱(Emmanuel Macron) 프랑스 대통령의 사회와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Andres Manuel Lopez Obrador) 멕시코 대통령, 이번 포럼의 의장인 품질레 므람보-응쿠카(Phumzile Mlambo-Ngcuka) 유엔여성기구 사무총장, 안토니오 구테흐스(Antonio Guterres) 유엔사무총장의 개회로 시작되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개회식 전반을 주재하였는데, 기조 발언에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4,700만 명의 여성이 추가로 빈곤에 빠졌으며, 수백만 명의 여성들이 보건의료 서비스 및 피임에 대한 접근이 제한되었고, 가정폭력 증가 등의 문제를 직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안티페미니즘과 가부장 제도 등 성평등 실현에 대한 장애물을 제거해야 함을 강조했다. 이어서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성평등 달성을 위한 다섯 가지 과제로

4) Generation Equality Paris: Official Opening Ceremony
<https://www.youtube.com/watch?v=gE08p2l7Ex4> (접속일: 2022. 3. 26.)

평등(equality), 동등(parity), 동일 노동에 대한 동일 임금을 포함하는 경제적 동등(economic parity), 여성과 여아에 대한 젠더기반폭력, 젊은 세대의 참여를 언급하며 이번 포럼이 여성과 남성 모두에게 중요한 성평등을 공동의 노력으로 달성할 기회임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디지털 성격차 해소와 디지털 경제활동에 있어서의 여성 차별도 새로 부상하고 있는 중요한 이슈로 지적하였다. 블람보-응쿠카 유엔여성기구 사무총장은 이번 포럼은 지금 여성이 직면한 상황을 변화시키기 위해 각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지 약속하는 자리이며 남성과 여성 모두의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후 개회식은 산텔 마레케라(Shantel Marekera) 짐바브웨 여아교육 관련 NGO 'Little Dreamers Foundation' 대표, 샤를 미셸(Charles Michel) 유럽 이사회 의장, 카말라 해리스(Kamala Harris) 미국 부통령,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Ursula von der Leyen) 유럽연합 위원장 등 화상회의로 참여한 대표들의 발언으로 계속되었다. 해리스(Kamala Harris) 미 부통령은 양성평등은 민주주의를 완성하는 요소임을 강조하며 언론의 자유, 투표의 자유 등의 “도구”들을 이용하여 여성들이 민주주의에 참여할 것을 촉구하였고 소외된 약자를 포용할 것을 강조했다. 현장에는 힐러리 클린턴(Hillary Clinton) 전 미국 국무장관도 참가하였는데, 26년 전 북경여성대회에 직접 참여하여 “인권이 곧 여성의 권리이며 여성의 권리가 곧 인권이다, 완벽하게 그리고 영원히(human rights are women's rights and women's rights are human rights, once and for all)”라는 유명한 연설을 했던 소회를 밝히며, 그동안 여성의 권리에 있어서 많은 진전이 있었으나,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많이 남았음을 촉구하였다.

개회식은 각국 정상, 국제기구 및 민간부문 대표들의 성평등을 위한 구체적인 예산과 정책을 약속을 발표하는 자리로 이어졌다. 빌 & 멜린다 게이츠 재단은 여성 리더십, 재생산 건강, 경제 임파워먼트를 위해 21억 달러 지원을 공표했으며, 포드 재단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야기된 여성의 위기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풀뿌리 여성 단체에게 4억 2천만 달러를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이 외에도 각국 정부는 성평등 정책 개혁 및 시행을 약속하였으며, 이번 세대평등포럼에서 중요하게 강조하는 공동대응 및 협력을 위한 새로운 매커니즘의 출범도 발표되었다.



출처: Generation Equality Paris: Official Opening Ceremony
<https://www.youtube.com/watch?v=gE08p2l7Ex4> (접속일 2022. 3. 26.)

[사진 2] 세대평등포럼 개회식

(사진설명: 좌측 상단으로부터 시계방향으로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구테흐스 유엔사무총장, 멜린다 게이트 빌 & 멜린다 재단 대표, 힐러리 클린턴 전 미 국무장관

3. 제1 주제 “양성평등을 위한 글로벌 가속화 계획(Global Acceleration Plan for Gender Equality)”

가. 젠더기반폭력(Gender-Based Violence) 행동연합 출범 세션⁵⁾

포럼의 둘째 날인 7월 1일 개최된 젠더기반폭력 행동연합 세션은 행동연합 참여 리더들과 각국 정부, 시민단체, 민간기업의 ‘약속 발표자(Commitment Makers)’들의 실시간 접속 및 영상 상영을 통해 향후 5년간의 기여 및 노력에 대한 약속을 발표하는 자리로 구성되었다. 이 세션은 여아인권단체인 Inua Dada 재단 설립자 자넷 부구아(Janet Mbugua)의 사회로 진행되었는데, 부구아는 서두에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전 세계적으로 젠더기반폭력은 “새도 팬데믹(shadow pandemic)”⁶⁾으로 부상하였음을 지적하였다.

5) Action Coalition on Gender-Based Violence <https://www.youtube.com/watch?v=swceLLa5P9k&t=3239s> (접속일: 2020. 3. 26.)

이어 유엔여성기구 사무총장 블람보-응쿠카와 주 유엔 미국대사 린다 토마스 그린필드(Linda Thomas-Greenfield)의 대답이 이어졌다. 블람보-응쿠카 유엔여성기구 사무총장은 이번 세대평등포럼은 북경행동강령이 제시했던 청사진의 이행 여부를 대대적으로 점검하고 새로운 방향과 계획을 제시하고자 기획된 자리임을 설명하고, 26년 전 북경에서의 약속이 충분히 이행되지 않고 있으며, 이번 세대평등포럼이 여성과 여아에 대한 국제적 약속이행을 위한 또 다른 도약의 기회가 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그린필드(Linda Thomas-Greenfield) 주 유엔 미국대사는 전 세계적으로 많은 여성과 여아가 전쟁과 분쟁의 표적이 될 뿐만 아니라 전쟁의 도구로 이용되고 있으며, 전쟁 및 분쟁 논의에 있어서 여성을 ‘피해자화’하는 것을 비판하며 의사결정에 있어서 여성의 참여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이후 젠더기반폭력 행동연합에 참여하는 정부, 국제기구, 민간기업, 시민사회, 청년단체 대표들은 소속 기관의 젠더기반폭력 철폐를 위한 약속과 이행계획을 약 3분간의 발언을 통해 발표하였다. 국가 차원에서는 우루과이, 케냐, 아이슬란드, 영국, 호주, 벨기에, 일본, 유럽연합, 카자흐스탄 등이 참여하였으며, 각국의 총리, 부통령, 장관이 직접 이행계획 발표에 나섰다. 이 중 많은 국가가 코로나19 이후 심화된 젠더기반폭력에 대한 우려를 표했으며, 젠더기반폭력 철폐에 있어서 남성과 남아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생존자 중심적인 접근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헬레나 델리(Helena Dalli)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성평등 장관은 젠더기반폭력 철폐는 유럽연합의 주요 전략적 목표임을 강조하며 유럽연합은 젠더기반폭력 철폐를 위해 향후 7년간 1.9억 유로를 투자할 것이며, 풀뿌리 단체 활동, 젠더기반폭력 인식제고, 피해자 보호, 성인지예산 구축 등의 활동과 더불어 올해 말 모든 유럽연합 국가들에 대한 젠더기반폭력 예방 및 철폐를 위한 최소한의 기준 구축을 위한 입법안을 발의할 계획에 있음을 밝혔다.

카트린 야콥스도티르(Katrin Jakobsdottir) 아이슬란드 총리는 현재 전 세계는 코로나

6) 코로나19의 확산과 더불어 전 세계적으로 여성과 여아에게 행해지는 폭력 또한 증가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UN Women은 젠더기반폭력이 팬데믹 진행과 동시에 팬데믹의 그림자처럼 진행됨을 일컬어서 이러한 명칭을 붙이고 이의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https://www.unwomen.org/en/news/in-focus/in-focus-gender-equality-in-covid-19-response/violence-against-women-during-covid-19> 참조 (접속일: 2022. 3. 26.)

19 이후 심화된 젠더기반폭력과 디지털 폭력, 온라인 성차별 발언과 같은 새로운 양상의 폭력을 경험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 속에도 여성들은 젠더기반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에 앞장서고 있음을 설명하였다. 이어 아이슬란드는 젠더기반폭력 생존자 지원 서비스 향상, UNFPA 성·재생산건강 서비스를 위한 자금지원, 남성과 남아의 참여, 생존자 중심 접근 등을 통해 북경에서의 약속을 이행하고 SDG5 이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유엔제네바사무국의 사무총장을 맡기도 했던 카심-조마르트 토크예프(Kassym-Jomart Tokayev) 카자흐스탄 대통령은 카자흐스탄은 진보적이고 여성 지향적인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2030년까지 가족과 젠더정책을 기반으로 하는 강력한 법적 프레임워크를 구축했고, 젠더 이슈는 카자흐스탄의 외교정책 우선순위를 강조했다. 카자흐스탄은 여성과 여아에 대한 폭력 관련 국가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며, 중앙아시아지역 지식 플랫폼을 구축하여 여성권한강화, 폭력예방 및 대응 방안에 대한 전문지식을 공유할 예정임을 밝혔다. 이외에도 다른 국가들의 젠더기반폭력 행동연합의 목표달성을 위한 기여와 이행계획에 대한 발표로 이어졌다.

동 세션은 이 외에도 각국 및 지역의 여아 및 여성단체, 활동가, 자선단체의 이행계획 발언으로 이어졌다. 이번 젠더기반폭력 행동연합 세션 발언 중에서는 공공장소에서 발생하는 여성과 여아에 대한 폭력에 대한 발언도 눈길을 끌었다. 여성과 여아를 위한 포용적이고 안전한 공간 및 도시를 위한 국제연합 활동가 수니타 다르(Suneeta Dhar)는 여성과 여아에 대한 성폭력과 차별은 공공장소에서도 행해지고 있음을 지적하며, 여성과 여아를 위한 안전한 공간 및 도시 조성을 위한 지역협력 프레임워크, 파트너십 확대, 페미니스트 자금 조달, 풀뿌리 단체 참여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서 필리핀 NGO 'Breakthrough'의 소히니 바타차리아(Sohini Bhattacharya) 대표 역시 공공장소에서 일어나는 여성과 여아 및 LGBT 커뮤니티에 대한 성희롱과 성추행은 그들의 권리와 존엄성을 해치는 행위임을 강조하며 이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변화를 요구했다.

동 행동연합에는 민간기업의 참여도 눈에 띄었다. 세바스티앙 바쟁(Sebastien Bazin) 아코르(Accor) 호텔 그룹 CEO는 민간부문에 종사하는 여성 중 80%가 젠더기반폭력을 목격했거나 이에 대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젠더기반폭력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용인될 수 없는 문제임을 지적했다. 아코르는 젠더기반폭력에 대한 인식제고, 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남성 참여를 강조하며 이를 위한 아코르 호텔그룹의 모든 계열사의 적극적인 참여를 약속했다.

이번 젠더기반폭력 행동연합 참가자들은 가정 내에서의 폭력뿐만 아니라 구조적 폭력 및 사회제도적인 모든 수준에서의 젠더기반폭력을 근절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사회 모든 부문의 협력과 공동의 노력이 필요함을 촉구하였다. 이번 행동연합 세션을 통해 행동연합 리더와 약속 발표자(Commitment Makers)들은 변화를 위한 각자 변혁적이며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하며 젠더기반폭력 철폐를 위한 국제적인 약속 이행을 다짐하는 자리로 앞으로 이 노력의 결과가 어떠한 열매를 맺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나. 경제 정의 및 권리 (Economic justice and rights) 행동연합 출범 세션⁷⁾

둘째 날인 7월 1일 개최된 경제 정의 및 권리 행동연합 세션은 위니 비아니마(Winnie Byanyima) 유엔 에이즈계획(UNAIDS) 사무국장의 사회로 시작되었다. 동 세션에서는 경제정책에서 지금까지 구조적으로 배제되었던 여성에 대한 논의와 더불어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심화된 여성 노동 문제 등이 거론되었다.

본 세션은 므람보-응쿠카 유엔여성기구 사무총장의 개회사로 시작되었다. 므람보-응쿠카 사무총장은 코로나19 팬데믹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돌봄노동 이슈를 제기했다. 이어서 생산자원에 대한 여성의 접근성 문제와 거시경제 논의에서 소외되는 여성들에 대해 심도깊은 논의와 해결책 제시가 시급함을 강조하였다.

이번 세대평등포럼 경제 정의 및 권리 행동연합 대표들의 발언에서는 돌봄 경제의 변화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나딘 가스만(Nadine Gasman) 멕시코 국립여성연구소장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 돌봄 관련 문제와 돌봄경제에 대한 투자의 중요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났으며, 계속해서 여성과 여아에게만 돌봄노동 부담이 가중되는 문제를 해결을 위해서는 향후 5년간 돌봄 이슈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제고와 더불어 정부, 민간 부문, 시민사회의 공동협력이 필요함을 재차 강조하였다. 올릭 크누센(Ulrik Knudsen) OECD 부사무총장은 유급 및 무급 돌봄 경제는 전적으로 여성의 활동으로 이루어지며 많은 여성은 열악한 노동환경과 저임금 등 다양한 문제에 노출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OECD는 젠더 고정관념, 돌봄분야에서의 전통적인 젠더 규범 변화, 유급 돌봄노동자 근무환경 개선 등의 접근을 취하고 있으며, OECD 회원국에 대한 OECD 성평등 권고 이행실태 등을 계속해서 모니터링 할 것을 약속했다. 가이 라이더

7) WEE Care - Building a Gender-Equitable Economy
<https://www.youtube.com/watch?v=JP67KecaxVU> (접속일: 2022. 3. 26.)

(Guy Ryder) ILO 사무총장 역시 코로나19가 여성의 삶에 미친 영향에 대해 언급하며 일자리 감소, 임금삭감, 무보수 돌봄노동 증가를 지적했다. 가이 라이더는 부사무총장은 이외에도 ‘직장 내 폭력 및 괴롭힘’ 관련 ILO 제190호 협약 이행 필요성을 강조했다.

동 세션에서는 돌봄경제의 변화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와 더불어 비공식부문 근로 여성에 대한 논의도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필리핀의 시민단체인 SENTRO의 니세 코로나시온(Nice Coronacion) 부국장은 여성이 경제에 기여하는 부분은 매우 큼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경제활동은 현저히 저평가되었고, 저임금 문제도 지속되고 있으며,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비공식부문 근로자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조치가 취해지지 않아 많은 여성이 타격을 입어 이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파멜라 감보아(Pamela Gamboa) 독립노동자조합 이사는 콜롬비아 경제활동 여성 중 경제활동인구의 65%는 비공식부문에 종사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 대한 주요 원인으로 여성이 배제된 신자유주의 경제를 꼽았다. 감보아 이사는 문제 해결을 위해 현재의 신자유주의 경제에 대한 적극적인 비판이 필요하며 여성과 청년의 적극 참여가 필수임을 강조했다.

국가적인 차원의 기여에서는 마리아 플라치바르(Maria Flachsbarth) 독일 연방경제협력개발부 정무차관이 생산적 자원에 대한 접근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여성의 자립력을 향상하며 이를 위해 독일은 향후 5년간 9개국에서 여성의 토지권을 위한 글로벌 프로젝트를 위해 3천만 유로를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안 린데(Ann Linde) 스웨덴 외교부장관은 성평등은 스웨덴의 국가적 발전의 중심이었음을 강조하며 여성과 여아에 대한 젠더기반폭력 철폐를 위한 1,600 유로와 여성권리 단체 지원을 위한 4,500만 유로를 지원하여 성평등 달성이 가속화되도록 기여할 것을 약속했다. 페드로 산체스(Pedro Sanchez) 스페인 총리는 성별임금격차를 포함한 경제부문의 모든 성별격차해소, 여성 기업가 양성, 여성 디지털 교육 등의 기여와 함께 공공정책개발에서 여성의 참여를 최우선시할 것을 다짐하고 북경행동강령이 지난 26년간 국제사회의 성평등 가이드라인이 되어주었던 것처럼 세대평등포럼이 미래의 가이드라인이 되어주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처럼 경제 정의 및 권리 행동연합 세션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과 돌봄경제, 비공식부문 종사 여성, 저임금, 경제 체제 논의에서 여성의 역할 증진, 여성 기업가 양성, 여성의 디지털 경제 참여 증진 등의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번 세션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여성과 돌봄 노동 이슈가 재조명되어 이에 대한 사회적 가치와 재평가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는 점이 고무적이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초래한 여성과

여아의 위기 상황 속에서 세대평등포럼의 행동연합 세션은 정부, 민간기업, 국제기구, 시민단체, 페미니스트 활동가가 한자리에 모여 북경행동강령 이후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며 다시 한번 성평등 달성을 위한 의지를 보여주는 자리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다. 성평등을 위한 기술과 혁신 행동연합(Technology and Innovation for Gender Equality Action Coalition) 출범 세션⁸⁾

본 세션은 그간 성평등한 기술·혁신분야를 일구기 위해 공헌해 왔던 이들이 행동연합에 동참하여 뜻을 같이하며 공동노력을 선언하고, 향후 5년간 약속 이행을 위해 어떤 세부적 조치와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논의하는 시간이었다. 세션은 말레이시아 출신으로 디지털 기술과 젠더 정의를 위해 힘써온 페미니스트 활동가이자, 누문 펀드(Numund Fund)의 공동창립자인 잭 키(Jack Kee)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잭 키는 세션 도입부에서 국제사회의 정치적 책무로 북경행동강령의 주요 분야로 정보통신기술(International Communication Technology, ICT)이 처음 포함된 후, 젠더정의와 포용적 접근을 위한 기술·혁신분야에서의 노력이 지속되어 왔으며, 오늘날 기술·혁신 분야 접근권은 성평등한 사회를 위해 필수적인 권리임을 강조했다.

세션 축하 대답으로 아니타 바티아(Anita Bhatia) 유엔여성기구 부총재는 여성 역량강화를 위한 기술·혁신분야 접근성의 중요성과 성평등 실현을 위한 이번 세대평등포럼의 접근법의 차이점, 마지막으로 약속 이행을 위한 유엔여성기구의 역할을 논했다. 먼저, 기술 혁신 접근권은 여성과 여아의 교육역량 기반이자 여성 기업가정신과 경제활동의 기반이라고 하였으며, 이에 따라 기술분야에 있어서의 성격차를 줄여나가기 위한 국제사회의 공동의 노력을 촉구했다. 세대평등포럼은 이전의 노력과 달리 각 행동연합이행을 위한 재정 지원 약속(financial commitment), 민관협력, 시민사회의 적극적 참여와 의견 개진을 통한 해결방안 탐색 등 여러 면에서 기존의 접근과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다. 여기서 유엔여성기구는 각종 지표와 프레임워크를 개발하여 각 행위자의 이행을 점검하고, 목표달성을 위해 조정기구로서의 임무를 수행하여 목표 이행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후 성평등한 기술·혁신을 위해 헌신하기로 약속한 각국 정부, 국제기구, 기업, 재단, 시민사회 활동가, 청년리더들의 이행계획이 소개되었다. 각국 정부의 논의에서 눈에 띄는

8) Action Coalition on Technology and Innovation for Gender Equality <https://www.youtube.com/watch?v=kuhGwMkKGNy> (접속일: 2022. 3. 26.)

점은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모두가 함께 성평등한 기술혁신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약속이행 계획을 발표했다는 점이다. 개발도상국 정부는 국내 여성의 교육역량과 경제발전을 위해 성평등한 기술 접근권이 필요함을 인지하고, 이행계획 발표를 통해 논의를 직접 이끄는 등 행동분야 내에서 리더십을 발휘했다. 개발도상국인 칠레, 르완다, 아르메니아,⁹⁾ 튀니지 대통령이 직접 나서 국내 성평등 기술접근권을 위한 이행계획을 발표하였으며, 이 중 튀니지를 제외한 세 국가는 지역기구와의 협력 혹은 국제회의를 통해 관련 논의를 확장시킬 계획이라며 정치적 의지를 표했다. 특히 본 행동연합의 주도국, 칠레의 세바스티안 피네라(Sebastián Piñera Echenique) 대통령은 과학·기술·혁신분야 국가성평등 정책(STEM and Gender Advancement)을 통해 1,000명에게 학계, 산업계, 시민사회와 함께하는 공적 컨설팅 기회를 제공하며, 신형 여성 과학자 양성을 위한 수학과과학교육을 강화, 교육시설에 대한 성인지적 모니터링을 착수할 계획임을 밝혔다. 또한 역내 성평등한 기술 논의 장려를 위해 라틴아메리카와 캐리비안 지역 여성의 디지털화 연합(alliance for digitalization of women in Latin America and Caribbean)에서도 여성의 기술접근성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성평등한 법제도를 통해 분쟁을 평화로 전환하고 여성의 정치참여를 고취하고 있는 르완다의 폴 카가메(Paul Kagame) 대통령은 디지털 접근성에 대한 젠더격차를 줄이기 위해 여성에 스마트폰 보급 확대, 디지털 재정서비스 접근성 증대, 포용적 기업이 생태계를 위한 여성 기업가 수 두 배 증대 등 국내 기술·혁신 성평등을 위한 계획과 함께 관련 분야에 대한 공동책무 촉구를 위해 동아프리카 공동체(East African Community)를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일부 선진국들은 단독 혹은 국제기구 및 대기업과 협력을 통한 디지털 문해율 증진과 기술혁신분야 내 성차별적 요소를 제거할 계획을 발표했다. 전자시민권으로 이미 디지털 분야의 전문성을 대내외적으로 알린 에스토니아 정부의 시네 리살로(Signe Riisalo) 사회보호부장관(Minister of Social Protection)은 개발협력과 인도적 지원에서 여성과 여아의 ICT 역량을 강화하고, WPS를 고려하여 관련 사업에서 사이버 안보와 젠더의 상관관계를 감안하겠다고 약속했다. 핀란드 페카 아비스토(Pekka Haavisto) 외무장관은 UNICEF와 협력하여 디지털 문해율을 높이고 개발협력에서 기술과 젠더와 연관된

9) 아르메니아 아르멘 사키시안(Armen Sarkissian) 대통령은 미분야 성평등 해결노력(ATOM, Advanced Tomorrow 이니셔티브)과 차세대 프로그래밍·고기술교육 계획을 발표(TUMO 이니셔티브)했고, 10월에 개최되는 Summit of Thoughts에서 기술개발 성평등 이슈를 논하겠다고 말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8천만 유로를 투자하고, 디지털 성주류화를 위해 추가로 50만 달러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프랑스 경제장관(Agnès Pannier-Runacher)은 대기업과의 협력하여 교육기관에서의 성차별 해결을 위한 이니셔티브를 시행할 것이며, 학내 성인지적 디지털 강의 마련, 여성의 디지털 혁신분야 직업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약속선언과 함께 국제기구의 선언도 이어졌다. 이 행동연합에 참여한 국제기구는 유엔여성기구 외에도 유니세프와 유엔의 ICT분야 전문기구인 국제전기통신연합(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이 약속선언에 참여했다. 유니세프는 여성의 디지털 문해율 강화와 인간중심적 온라인기술 창출 계획을 발표했고, ITU는 기술역량 강화를 통한 젠더리더 양성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헨리에타 포레(Henrietta Fore) 유니세프 총재는 누구보다 현실을 잘 알고 있는 여성과 여아의 손을 빌려 성평등과 디지털 폭력을 해결하고 인간중심의 온라인 기술 구축을 위해 안전한 가상공간 플랫폼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MS사와 협력하여 디지털 문해콘텐츠 개발, 멘토-동료 지원 플랫폼, 디지털분야 구직에서의 성평등 실현, 차세대 여성 기업가 지원 강화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ITU 사무총장 자오허우린(Zhao Houlin)은 성평등한 기술과 분야 내 젠더 리더 양성을 위한 세부 이행노력을 발표했는데, 자오 사무총장은 ITU가 유니세프와 GIGA 이니셔티브로 초중등 여아의 교육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WTO와 여성의 이커머스(e-commerce)등 여성의 디지털기술 활용역량 강화를 위해 협력 중이며, 유엔여성기구와는 여성역량강화 프로젝트(Gender Equal Project)를 통해 2026년까지 1만 명의 기술·경제분야 젠더 리더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본 행동연합에서는 또한 활발한 기업-민간재단-시민사회 간의 협력사업도 눈에 띄었다. 민간영역과 시민사회 간에는 다양한 협력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를 간략히 요약해보면, 1) 지구적 남부(global south)의 민주주의와 여성인권의 진보를 위한 기술 창출(Global Fund for Women과 Numun Fund), 2) 여성의 기술기반 재정서비스 접근성과 역량 강화 프로그램(BBVA Microfinance Foundation과 마스터카드(Mastercard)사),¹⁰⁾ 3) 사이버 젠더기반폭력 방지 및 전통적 성고정관념을 없애기 위한 플랫폼 개발 캠페인(Plan International과 삼성), 4) 소셜미디어 업체들에 젠더기반폭력 관련 책무 부과 및 성인지적 언어와 도구 사용 압력 넣기(World Wide Web Foundation과 포드재단), 5)

10) BBVA Microfinance Foundation 재단의 대표 Javier M. Flores는 여성의 재정서비스 접근권 강화와 역량 강화를 위해 UN여성기구, 마스터카드사와 함께 인터넷 연결성을 높이고, 원격리 훈련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마스터카드사의 Anne Cairns 부회장은 2025년까지 기술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구체적으로 500만 명의 여아교육과 2,600만 개의 여성기업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개도국 시골지역에서의 여성기업인 창출과 여성 경제역량 강화를 위한 인터넷 연결성 확대 (MicroSoft사와 유니레버) 등 기술혁신분야의 성차별적 관습과 젠더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측면의 노력과 계획이 논의되었다.

이처럼 본 행동연합은 여성의 기술혁신분야 접근성 개선과 여성과 여아의 관련 역량 강화 등을 통해 현대인으로 필수불가결해진 디지털 접근권리를 여성이 향유할 수 있도록 보호 및 강화하는 한편, 분야 내 만연한 성차별적 관습과 기술장벽을 없애고, 이를 위한 여성 리더십을 강조했다. 특히 지구적 남부와 북부 간의 세계 경제 격차와 디지털 성 격차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발표된 약속들이 다자 이해관계자를 바탕으로 하여 이루어졌기 때문에 행동연합 주도국인 칠레를 비롯하여 여러 개도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포용적이지 못한 현재의 과학기술 분야의 문제를 인식하고 약속 이행을 위한 중요한 모멘텀을 마련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음 호에서 계속)

(다음 호(2)에서는 2021년 7월 2일 개최된 나머지 3개의 행동연합 출범 세션, 여성평화 안보와 인도적 활동에 관한 협약 출범 세션, 그리고 폐회식 참관기가 이어집니다)